

# Bakelite, Borden Chemical이 인수

세계적 에폭시수지 생산기업에 편입 ... 국내시장은 Specialty로 차별화

Bakelite Korea(베이클라이트코리아)의 모기업인 독일 Bakelite AG가 10월7일자로 미국의 Borden Chemical에 매각됐다.

Bakelite Korea 관계자는 10월11일 “미국 Borden Chemical이 Bakelite AG를 소유하고 있는 Rutgers AG로부터 Bakelite AG의 사업부 모두를 매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매매거래는 유럽연합의 독과점방지에 대한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Bakelite AG는 RAG 그룹 내 Rutgers AG 부문의 4개 소그룹 중 한곳으로 Bakelite Korea는 Bakelite AG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역할을 맡아 왔다.

Bakelite AG를 인수한 Borden Chemical은 투자기업인 Apollo Management의 소유로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2400명에 2003년 매출액이 14억달러에 달했다. 열경화성 바인더, 접착수지, 기능성 접착제,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목재 및 산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에 이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영업·판매는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pollo Management Group은 에폭시수지 및 BPA 등을 생산하는 Resolution Performance Products(RPP)를 소유하고 있어 Borden Chemical과 Bakelite AG의 합병으로 열경화성 수지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Bakelite Korea 허방 사장은 “Bakelite Korea는 Bakelite AG 전체가 매각됨으로써 소유주가 바뀐 것일 뿐 에폭시 및 페놀수지의 생산과 판매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범용제품이 아닌 Specialty 제품에서 강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0/13>